

## 6/20(월) 느헤미야 묵상 14

### 느헤미야 8:1-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12년간 유다 총독으로 지내다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페르시아에 다녀온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도 에스라서 10장에 등장한 후 무려 14년 만에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는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예루살렘에 모여

본문 1절은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음을 묘사합니다(1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 이유는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민간력으로 새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은 나팔절로 지키고, 10일은 속죄일이며,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먼저, 나팔절은 안식일로 지정되어서 노동이 금지된 날입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새해 첫 날로서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0-11절에 이 날을 ‘성일’이라고 말씀합니다(10하-11절,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나팔절에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의 공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에스라서 10: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 앞 광장과 같은 장소로 추정됩니다(스 10:9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가 민족의 대표로 서서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낭독합니다. 본문 4절에 기록된 에스라 주변에 위치한 13인의 사람들은 에스라 곁에서 백성들에게 차례로 돌아가면서 율법책을 읽어주던 제사장들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사람이 율법책을 다 낭독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에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5-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 성일에 드러지는 예식에는 순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다른 제사장들이 광장에 서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율법의 말씀을 다시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줍니다(7절하-8절,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낭독하고 해석해주는 말씀을 듣고 다 울게 됩니다. 이는 그들에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큰 감동의 역사가 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2차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슬퍼하며 울지 말고 기뻐할 것을 선포합니다(9절-10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삶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에 레위 사람들이 모인 자들 중에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정숙하게 하며 성일에 마땅히 기뻐할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 때 유다 백성들은 모두 순종하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잃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았이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10절)”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분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느헤미야의 고백대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며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가 인생의 가장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학으로 떠나 보내고 또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국을 위한 기도:** 국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지혜와 정의로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물가가 안정되게 하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시기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다양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교회 각 위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교우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몽골 김봉춘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